

LÉVY GORVY

또 다른 예술 UN ART AUTRE 전후 파리의 추상

2019 년 4 월 26 일 - 7 월 5 일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오프닝 리셉션: 2019 년 4 월 25 일 목요일 6-8PM



조안 미첼 <무제> 1957. 캔버스에 유채, 175.2 x 148.5 cm
© 조안 미첼 재단. 개인 소장, 산타바버라.

런던-레비고비 런던은 전후 파리의 추상 계보를 재탐색하는 전시 <또 다른 예술>을 2019 년 4 월 25 일부터 개최한다. 전시의 제목은 저명 비평가이자 큐레이터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의 1952 년 동명 저서에서 유래한다. 샘 프랜시스(Sam Francis), 조안 미첼(Joan Mitchell), 장 파울 리오펠(Jean Paul Riopelle),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s)와 자오우키(Zao Wou-Ki)의 작품을 포함한 이번 전시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는 분리된 유럽의 추상 흐름을 조명하며 1950-60 년대 예술과 지성, 문화교류의 중심으로서 파리의 풍경을 살펴본다.

<또 다른 예술>의 출품작에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밀드레드 레이 캠퍼 미술관(Mildred Lane Kemper Art Museum)의 대여작인 샘 프랜시스의 1956/58 년작 <아르케이 Arcueil>가 포함되어 있다. 작가의 작업실이 위치한 파리의 지명을 제목으로 삼은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1958-59 년 전 세계를 순회했던 역사적인 전시 <뉴 아메리칸 페인팅>의 출품작으로, 당시 테이트 갤러리에서 전시된 이후 60 년 만에 영국에서 다시 선보이게 된다. 또 다른 주요 출품작인 조안 미첼의 <무제 Untitled> (1957)는 미첼의 작가 인생에 있어 핵심적 전환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상징하는 대담하고 활력 넘치는 붓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르웨이 호빅에 위치한 헨니 온스타 아트센터(Henie Onstad Kunstsenter)의 소장품 중 프랜시스와 리오펠의 작품 일부가 대여작으로 소개되며, 포르투갈 리스본 베라르두미술관(Museu Coleção Berardo)의 소장품인 리오펠의 명작 <추상(주황) Abstraction(Orange)>(1952) 역시 대여작으로 포함되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출품작을 통해 이번 전시는 역동적인 한 시대를 장식한 파리 추상의 유산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세계 2 차대전 이후 남긴 충격과 트라우마와 직면한 전후세대 작가들은 형태를 급진적으로 해체하고 역동성과 생명력, 자유로운 제스처에 기반한 새로운 미학적 지형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타피에는 그의 저서 「또 다른 예술」(1951)과 연계 전시를 통해 당시 흐름을 대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저서의 부제인 ‘실재의 새로운 펼침에 대하여’(Où il s'agit de nouveaux dévidages du réel)는 전통적인 개념의 구성과 체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고자 했던 동시대 작가들의 예술적 비전과 의지를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다. 자연주의와 구상, 기하학적 형태를 새롭게 ‘펼쳐냄’으로써 그들은 산산조각 난 세계를 다시 이어 붙일 시각적 언어를 모색하고자 했다.



샘 프랜시스 <아르케이드>1956/58. 캔버스에 유채 205.1 x 193 cm. © 샘 프랜시스 재단, 미국 캘리포니아/ DACS 2019. 밀드레드 레인 캠퍼 미술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Mr. and Mrs. Richard K. Weil 기증 작품, 1962.

<또 다른 예술>은 역동적인 창작의 시대를 이끌며 당시 파리로 모여들었던 프랑스와 전 세계 미술가, 철학자, 시인, 그리고 학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레비고비는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미술사가 엘리자베스 뷰히(Elizabeth Buhe)의 학술 에세이와 매튜 홀먼(Matthew Holman)의 연대기를 함께 출간한다. 이와 더불어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이자 전기작가 리사 이모디노 브리랜드(Lisa Immordino Vreeland)가 1950-60년대 파리의 모습을 포착한 단편 영화를 전시에 맞춰 제작하여 당시의 시대정신과 활동했던 작가들의 모습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 메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센트럴 홍콩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는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